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1차 회의 6월 28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1차 회의가 28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조미옥·이철갑·강대석·김남기·이수학·임효택·장우철 위원 등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임 행진곡’ 시민 염원 잘 담아...대안 제시 칼럼 많아지길”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색다른 기획 ‘시대를 밝힌 노래’
분만 취약 전남 등 의료 기사 발굴을

▲김윤하=5월18일부터 게재한 ‘시대를 밝힌 노래’ 시리즈는 노래의 탄생 배경 등을 통해 시대상을 돌아보는 색다른 기획이다. 같은 날 2면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기사에서 광주의 5월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주목한 점은 5·18민주화운동과 맞물린 돌보이는 기사였다.

데스크시각 ‘아이쿠와 두다 야구장서 보고 싶다’<6월22일자 23면>는 지자체와 프로야구 구단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이었다. 이 지역 업체가 생산한 캐리터를 구단 홍보컨셉으로 활용해 광주문화를 알리는 메인저로 키워가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비판성 칼럼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도 더 많아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분만 취약지역 전남, 다문화 가정 고위험 임신부 증가, 내과전문의 부족 사태 등 지역성 있는 의료 관련 기사를 발굴하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바란다.

▲강대석=5월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광주일보는 ‘임 행진곡 아시아가 함께 부른다’<5월12일자 1면> 등 다양한 기사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광주는 입을 부르고 싶다’<5월17일자 1면> 편집은 시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내고, 국가보훈처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제작이었다.

또 ‘기대 못 미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6월8일자 1면> 기사는 상세한 보도로 혁신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앞으로 가족동반 이주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시작한 ‘시대를 밝힌 노래’ 시리즈는 기획의도가 좋다.

▲김남기=광주일보가 감동을 주는 신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건·사고 기사는 물론, 복잡한 정치 기사보다 참신한 기획, 문화 기사 등을 앞쪽 지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답답한 정치기사나 사회문제보다 미래지향적인 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수범사례, 미담 기사를 발굴,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에 관한 따른 박성천 기자의 기자노트 ‘맨부커상과 오월광주’<5월19일자 4면>는 시각이 돋보이고 시점이 적절했다. ‘아빠, 16강 간다’<6월22일 20면>는 사진은 좋

지만, 기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사진에 기사를 임하는 시도는 좋으나 이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편집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임효택=U대회 성공개최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남았다.

현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진월테니스장 뿐이다.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은 일부 개방하고 있으나 시설권한을 가진 대학 측 운영방식에 따라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다. 헬세로 완공된 이 시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학교폭력 분노·상처 범인이 치유한다’<6월13일자 7면>은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사다. 학생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된다. 경제난은 가정을 파괴하고 학생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마음의 문이 좁아진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을 질타만 할 게 아니라 풀어줘야 한다.

▲조미옥=광주일보는 최근 발생한 섬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지역을 표기하지 않은 세심한 배려와 여교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현장감 있는 보도가 좋았다. 다만, ‘경찰조사로 본 범죄 재구성’ 기사는 지나치게 상세해 거부했다. 기사화하기 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

‘광주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대도시 최고수준’<6월14일자 10면> 기사는 아쉬웠다. 성적 올리기엔 급급한, 삭막한 과열교육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최근 학생들에게 ‘광주일보에 바라는 점’을 물어봤다. 중학생 단계에 어려운 단어·한자가 많다는 점과 오타자를 지적했다. 특히, ‘미녀들의 산책’<6월20일자 7면> 사진기사 제목에서 아이들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미녀라는 표현보다 여인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 독자 청소년을 위한 제작이 필요하다.

▲장우철=‘전남, 사망자>출생아 데드크로스’<5월31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생소한 단어 ‘데드크로스’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고통화에 따른 전남지역의 문제를 적절하게 취재, 보도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여름휴가를 앞두고 야외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전남 야영장 5곳 중 1곳은 미등록’<6월21일자 7면> 기사 등은 안전불감증에 빠진 시민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시의 적절한 기사다. 휴가철을 앞두고 이같은 문제를 집중취재해 지역에서 더 이상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이철갑=‘세세대 사무총장은 아무나 하나?’<6월24일자 2면> 제목으로 게재된 ‘이홍재의 세상만사’ 칼럼이 돋보인다. 그동안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여론의 향배를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칼럼, 해안을 제시하는 글을 기대한다.

기획탐사 보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문의 영향력이다. 더 많은 탐사, 기획기사를 실었으면 좋겠다. 특히 한빛원전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리즈가 있는데, 첫날 1면에 배치한 뒤 나머지 기사는 6면으로 배치됐다. 이런 중요한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면에 지속 배치하거나, 2~3면 등 앞쪽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데드크로스 문제를 잘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문화가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획기사를 게재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도적,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한다.

▲이수학=개헌논의가 한창이다. 광주일보도 개헌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주로 대통령 단임제·중임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내각책임제라는 좋은 제도도 있다. 이는 정치적 소수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지는 정치체제다.

호남의 정치발전을 위해 광주일보가 정치제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을 해주길 바란다.

가장 아쉬운 것은 경제기사들이다. 사실을 전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하고 있는데, 시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문화부에서 책·공연·영화 등 많은 기사를 쓰고 있지만 부족한 감이 있다. 광주일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와 문화 관련 기사를 좀 더 풍부하게 반영해줬으면 한다.

/정리=박기용기자 pboxer@

조미옥
영암신북중학교 수석교사



섬 여교사 성폭행 지나치게 상세 묘사
외모지상주의의 표현 자제해야

장우철
광주제능기부센터 사무처장



휴가철 야영장 점검 경각심 일깨워
대형사고 예방위해 꾸준한 보도를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원전 핵연료 등 기획탐사 비중 늘려야
전남 저출산 이어 다문화가정도 다루길

이수학
이수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뜨거운 감자 개헌...호남 여론 주도를
경제·문화 기사 더 풍부해졌으면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광주는 입을 부르고 싶다’ 편집
5·18 관심 이끌고 보훈처 압박 강화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서화가

참신한 기획·문화 기사 전면 배치
시각적 불편 없도록 편집 신경을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고 교감

U대회 시설 사후 활용 문제 점검
세계수영선수권 성공개최 이끌어야

숙박 (무인텔/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융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 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010-3605-5000